

황금빛 '생채색 기법' 활용 관음성지 낙산사 위상 보여주고자

'황금 삼십삼 관음보살도'
낙산사에 기증한 불모 이연욱

2005년, 우리나라 대표 관음성지 중 하나인 낙산사가 화마에 휩싸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불모 이연욱(중요무형문화재 제 48호 단청장 이수자)씨 또한 낙산사 소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불모이기 이전에 불자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그는 낙산사 원만 복원을 기원하며 관세음보살을 그려 나가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마다 108배를 올리며 작업에 임했고 1년이 지난 2006년 가을, 이 씨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황금 삼십삼 관세음보살도'가 탄생되었다. 이 씨는 이를 낙산사 복원을 기원하며 낙산사에 기증했다. 그동안 복원 작업으로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 못했던 그의 작품이 지난해부터 낙산사의상기념관에서 대중들을 찾고 있다.

'황금 삼십삼 관세음보살도'의 특징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금가루를 활용한 생채색 기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 씨는 이미 이 기법을 활용한 삼세여래후불탱화로 제14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우수상을 받았을 만큼 생채색 기법 활용에 능숙하다.

"원덕문 스님께 탱화를 배웠는데 스님께서는 산수도, 관음도를 그리실 때 생채색 기법을 사용하셨어요. 모시바탕에 초지를 붙이고 한지를 붙여 배접을 하고 고분을 하고난 뒤 옷칠을 하죠. 여기에 순금을 붙여 금 바탕 위에 채색을 올리는 조성 방법이에요. 이 기법은 1710년에 조성된 안성 칠장사 삼불회괘불탱화(보물 제296호) 등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현대에는 잘 사용되지 않았어요. 낙산사의 복원을 기원하며 금가루를 이용한 생채색 기법을 활용해보았습니다."

질병이나 고통을 없애는 서원을 세운 '양류관음', 용의 머리 위에 서 있는 '용두관음', 손에 경권을 지니고 있는 '지경관음', 흰옷을 입고 왼손에는 연꽃을 쥐고 있는 백의관음 등 다양한 모습의 관세음보살도는 그 안온한 자태가 보는 이로 하여금 환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33개의 관세음보살도마다 각자 다른 모습의 동자승이 등장하는 점도 흥미로우며, 순금 빛 바탕에 채색과 어우러져 조명에 따라 존용이 다르게 보일뿐 아니라 각도에 따라 색상의 빛이 오묘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불교에서 황금빛은 영원히 타고 있는 불을 상징해요. 이는 곧 깨달음의 높은 경



불모 이연욱 씨는 관음성지 낙산사의 변함없는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황금 삼십삼 관세음보살도를 낙산사에 기증, 현재 의상기념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매일 108배하며 간절한 마음 담아
낙산사 복원 염원하며 관음상 조성
황금빛 관음의 미소로 승화 평가
의상기념관에서 2016년까지 전시



황금가루 이용한 생채색 기법으로 완성한 '용두관음'.

지를 의미하죠. 때문에 황금을 사용해 관음성지 낙산사의 변함없는 위상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제 그림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작은 등불을 밝히고자 하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40여년 동안 조계사, 봉은사 등 300여 곳의 단청과 불화를 조성해 왔다. 그가 불모가 되기까지는 독실한 불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경남 산청이 고향인 그는 매일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아버지의 기도소리를 듣고 자라왔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새벽 3시 30분이면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관음기도를 하셨어요. 그 염불소리를 들으며 성장했기에 불심을 온몸으로 체득하며 자랐죠. 그러다가 17살에 단청 작업을 처음 구경하게 되었어요. 문익점 선생님의 시배자가 우리 고향인데 그곳의 비각을 새로 세우는 작업을 하면서 서울에서 온 단청장을 처음 보게 됐죠. 단청이 너무 아름다워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원을 세우게 되었어요."

이후 서울로 올라와 스승인 김한옥 선생 아래서 단청을 배웠고 밤에는 그림 공부로 따로 했다. "원덕문 스님이 문암동 흥천사에 계시는 때 불화를 전수 받았어요. 끊임없이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열심히 습작을 했는지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그림을 펼쳐 보일 정도였죠.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이 보여준 그림은 다음날 다시 그려 나가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이 씨는 앞으로도 꾸준히 불화 작업에 매진해 나가고자 한다. 낙산사 '황금삼십삼관세음보살도' 전시는 2016년도 7월까지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며 조만간 개인전으로 대중들을 찾아가고자 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하루 일하지 않으면 그날 먹지 않는다

지금자족 유기농라이프

tvN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

배우 이서진과 가수 택연이 강원도 정선 시골집에서 밥 해먹고 수수 베는 삼시세끼는 기존의 예능 프로그램과는 확연히 차별화를 이룬다. 게임을 하면서 경쟁하지도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험레벌떡 뛰어다니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유유자적하며 자연을 즐기는 전원생활의 꿈을 보여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별다른 미션 없이 제복 그대로 '삼시세끼'를 손수 해먹으면 된다. 단 지금자족 유기농라이프라는 부채처럼 장작불을 사용해야 하고 텃밭에서 나는 음식을 주재료로 요리해야 한다. 도회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배우 이서진과 아이돌 가수 출신 택연. 이 두 남자에게는 고되고 혹독한 시골살이가 아닐 수 없다.

절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키질을 하기도 하고, 맷돌을 돌리기도 하는 등, 이들은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요리 방법으로 눈물겨운 한 끼 한 끼를 만들어낸다. 편리한 주방도구도 많지만 그런 도구들은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한 끼 밥을 해내는 것도 힘든데 수수도 베어야 하고 시시때때로 손님이 찾아와야 했다. 그렇게 분주하게 오가다 보면 둘의 하루가 다간다. 이서진은 왜 이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투덜대고 이 프로는 망했다고 중얼거린다. 하지만 게스트로 온 배우 류승수의 반문에서 삼시세끼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프로의 콘셉트는 뭐야? 삼시세끼 밥 먹기가 정말 힘들다는 건가?"

삼시세끼는 불가에서 말하는 일일부작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을 떠올리게 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그날 먹지 않는다'는 백장 스님의 일화는 유명하다. 백장 스님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매일 대중들과 함께 밭에 나와서 일을 했다. 함께 일하던 제자들은 노스님이 나서서 일하는 모습이 민망해 하루는 농사에 쓰는 연장을 감추어 버렸다. 연장을 찾지 못한 스님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고 공양도 들지 않았다. 제자들이 찾아가 공양 들기를 청하니 "내가 아무런 덕도 없는데 어찌 남들만 수고롭게 하겠는가.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일일부작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이 나왔다고 한다.

노동하지 않았으니 한 끼도 먹지 않겠다는 백장 스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고 빠르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교훈을 일러준다. 일확천금을 노리



삼시세끼는 출연진들이 노동하며 한 끼를 완성해 먹는 프로그램으로 백장 스님의 '일일부작일일불식'의 교훈을 떠올리게 한다.

노동하며 한 끼 완성하는 과정
'일일부작일일불식' 교훈 되새겨
한 끼의 감사함 일깨워줘

니 로또를 사게 되고, 공부는 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싶다고 부처님께 떼스뽏 빌고 있지 않은가? 인연과보의 원리를 알면 세상에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어리석어서 바라는 마음을 내고 바라는 마음을 내니 원망이 생긴다.

그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이 바로 '일일부작일일불식'이다. 일하지 않으니 밥 먹을 수가 없다는 백장 스님은 공짜로 밥 먹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그 한마디로 일깨워주었다. 삼시세끼의 주인공 역시 스스로 밥을 하지 않으면 한 끼도 먹을 수 없다. 일사분란하게 뛰어 다니며 한상을 차려내며 한 끼

한 끼 스스로 해 먹는 기쁨을 알아간다.

이 프로의 또다른 특징은 다양한 게스트들이 와서 함께 시골살이를 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오지만 집주인들의 요리를 도와주며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한 끼를 같이 완성해 나가기도 한다. 모두 중지를 모아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다 보면 서로 간에 돈독한 정을 쌓게 되고 함께 이루어가는 기쁨을 알게 된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 한 끼를 먹는 공덕도 쌓아간다. 그러니 이 한 끼는 얼마나 소중한 귀한 것인가?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허물을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오관계'처럼 삼시세끼는 밥 한 끼의 감사함과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야말로 유쾌하고 즐거운 유기농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다.

정혜숙 기자

謹賀新年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분다

위드분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분다를 검색하세요.

www.withbuddha.co.kr